

백화점 '자투리 매장' 불황속 효자

통로·에스컬레이터 등 알짜공간에 위치 가발·잡화 등 유동고객 많아 매출 쑥쑥

백화점 매장 통로, 엘리베이터 주변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매장들이 불황 속에 선전을 하면서 백화점 패션상품 매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디자이너·수입 여성의류매장의 엘리베이터 옆 자투리 공간(10㎡·약 3평)에 위치한 '시크리 우먼'에서는 가발을 판매한다.

탈모나 머리 스타일이 적어 고민하는 중년 여성들이 주위 시선을 피해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 있다보니 하루 평균 다녀가는 고객수만

평일 약 10명, 주말에는 15~20명에 이른다.

가발이 아직까지 보편화된 품목이 아닌데다 숨은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매장 노출이 잘 안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이라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또 각 층별 매장 특성을 고려해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관련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4층 여성의류 매장 에스컬레이터 주변에는 액세서리와 매니큐어 등을 파는 잡화코너와 화장품 브랜드인 '바닐라코'가, 5층 스포츠·캐주얼 매

장에는 패션 시계 브랜드인 '스왈치'와 '지샤이', 6층 아웃도어·골프 매장에는 스포츠 선글라스 브랜드 '올리'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 매장은 에스컬레이터 벽면을 따라 길게 위치해 있으며 크기는 16~36㎡(5~11평) 정도다.

유동고객도 많고 노출이 잘 되는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있다보니 매출도 매출 평균 약 7~8%씩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신세계 8층 유아동 의류매장 에스컬레이터 옆에는 유기농 유아동 내의를 판매하는 '오르시메'가 판매대 2개를 놓고 영업 중이다. 고정매장이지만 매장 크기는 3.3㎡(1평)에 불과하다. 하지만 매출 증가율만 지난 9월 19%, 10월 현재 22%에 달한다.

광주신세계는 에스컬레이터 벽면을 활용한 팝업 매장을 수시로 운영한다.

팝업매장은 2~3달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운영돼 '찐다 사라진다(Pop-up)'의 의미로 최근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많이 선보이고 있는 매장의 형태다.

6층 영웨이브·스포츠·아웃도어 매장 에스컬레이터 옆에는 '노스페이스 키즈'가 영업 중에 있다. 6.6㎡ 남짓한 공간에서 입점 한 달 만에 매출이 24%나 늘어나는 등 매출실적도 좋다.

'노스페이스 키즈'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 매출실적이 좋을 경우 정규매장으로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승중)와 광주시·광주대학교 등 8개 기관은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HRD) 활성화를 위해 광주HRD거버넌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한다.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제공>

산지직송 싱싱한 완도 전복 맛 보세요

광주신세계 백화점 내달 1일까지 '완도군 향토 특산물전'

(주)광주신세계가 지역상품 판로 확대 및 태풍피해 지역민을 돕기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완도군 향토 특산물전'을 진행한다.

올해로 4회째 진행되는 이번 특산물전에서는 완도지역의 다양한 특산물을 산지 직송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지역 우수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완도 현지의 생산자들이 광주신세계 식품매장에서 직접 완도군의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특산물전에서 판매될 상품은 완도 자연산 활전복을 비롯해 전복 통조림, 건새우, 반건조 장어, 멸치, 완도쌀, 유자막인 한우 등 총 100여종에 달한다.

이와함께 광주신세계는 행사기간 동안 2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500개 한정 완도함쌀을 증정하고 11월1일 오후 4시에는 특산물구매회를 대상으로 응모 행사를 진행, 추첨을 통해 완도 활전복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26일 열리는 '완도군 향토 특산물전' 개막행사에는 조창현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중식 완도군수, 박성규 완도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조창현 (주)광주신세계 대표는 "광주신세계는 졸업 이래 지속적으로 지역 우수상품 발굴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특산물전을 통해 지역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꾸준히 지속해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상생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골든브릿지저축銀 30억 유상증자

연말까지 BIS 비율 10% 이상으로 높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5일 30억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이번 증자를 통해 BIS비율을 5.61%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며 "이는 지난 4일 후순위예금의 출자전환에 이어 약속된 추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에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 고객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 되겠다는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고객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연말까지 초우량저축은행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수준까지 추가증자, 후순위 예금 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자본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보유중인 후순위예금 30억원을 출자전환한 바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5일 30억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이번 증자를 통해 BIS비율을 5.61%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며 "이는 지난 4일 후순위예금의 출자전환에 이어 약속된 추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에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 고객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 되겠다는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고객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연말까지 초우량저축은행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수준까지 추가증자, 후순위 예금 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자본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보유중인 후순위예금 30억원을 출자전환한 바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9월 광주·전남 어음부도율 소폭 하락

9월 중 광주·전남 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012년 9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 동향'을 분석한 결과 9월 어음부도율은 0.42%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0.22%→0.33%)이 0.11%포인트 상승했지만 전남지역(0.81%→0.49%)은 0.32%포인트 하락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코스피지수	▲ 1,924.50 (+10.54)
코스닥지수	▼ 518.25 (-6.10)
금리 (국고채 3년)	2.81% (0.00)
원·달러 환율	▲ 1,098.20원 (-5.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중소 대출금리 차별 현장점검 강화"

권혁세 금감원장 광주지역 상공인 간담회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수수료 차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광주 서구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최근 은행실세 점검 결과 대·중소기업간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기준이 대체로 동등했으나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신용도가 낮아 금리 수준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직

접 자금조달이 어렵고 매출감소 등으로 영업현금이 감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는 대출확대 계획을 내놓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도입한 동산담보대출 취급범위를 확대하고 담보물 관리 인프라를 보완하는 한편, 2.3차 협력업체에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보증부대출 추천권을 대기업에서 은행·보증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車·전자 타격...수출기업 52% 환차손

환율 1100원선 붕괴...항공·여행업계는 희색

25일 원·달러 환율이 1년만에 1100원선마저 무너지며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미 절반 이상의 수출 기업이 환차손을 입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업종인 전자와 완성차 업계의 경우 환율 급락으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국내 수출 기업의 절반 이상은 이미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기업 160개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2.6%가 원·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기존 수출계약 물량에 대한 환차손 발생'(49.6%)이 가장 많았고 '원화 환산 수출액 감소

에 따른 재산상 악화'(31%), '수출단가 상승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17.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나 전자업체는 환율 하락을 다른 업종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수출 비중이 75~80%를 차지하고 있어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매출이 약 2000억원(현대차 1200억원, 기아차 800억원) 줄어든다.

현대차 그룹은 환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시장 전망보다 보수적으로 잡은 환율 예상을 바탕으로 내년 경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LG전자는 "매일 환율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시설투자 및 원유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외화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유사들은 환율하락을 통해 환율 등락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상반기 유가 상승으로 고전한 항공사들은 반기고 있다. 최근 환율이 떨어져 외화부채가 축소되고 달러로 결제하는 비용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측은 환율 하락이 재무평가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10월 변동할 때마다 항공유 구입비용, 항공기 리스비용이 줄어 87억원 상당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계도 환율 하락을 반기고 있고 면세점도 관광객들의 구매액이 늘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1층 농협, 카페베네, 편의점 입점 확정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6~7층 전문학원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준공 완료

시공: 토담건설 | 분양 및 임대문의 | 062-576-8938 · 016-885-0881

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총 118세대 (5TYPE / 41㎡~65㎡)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모델하우스 10월 오픈

TODAM huros Premium 도시형생활주택

시공: 토담건설 | 분양 및 임대문의 | 062-576-8938 · 016-885-0881